한국禪 '돈오돈수' 매몰… 다양한 禪風 필요

김방룡 교수, 3일 반야불교문화硏 학술대회서 주장



돈오돈수, 출발 · 중간점 설명 모호
"구경각 · 임제 법맥 이은 자 있는가
돈오돈수의 현실적 어려움 확인돼"

禪 · 敎 함께해야 간화선 더 발전해
위빠사나 · 티베트불교 장점 포용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한국선(禪)의 정체성을 성철 스님의 '돈오돈수'에서만 찾지 말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다양한 선풍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방룡 충남대 교수〈사진〉는 6월 3일 통도사 반야암에서 '불교의 근본 가르침과 한국불교의 정체성-불교란 무엇인가를 다시 묻는다'를 주제로 열린 제4회 반야불교문화연구원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국선의 정체성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란 주제 발표에서 "성철 스님의 '돈오돈수' 이론은 구경각은 분명하지만 그 출발점과 중간 과정이 모호한 약점이 있다"며 "돈오돈수의 간화선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은 구경각 지위에 있으면서 대대로 임제종의 법맥을 이은 자여야 하는데 현재 찾아볼 수 없다. 돈오돈수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성철 스님의 〈한국불교의 법맥〉을 언급하며 '임제-태고 법통설'이 역사적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정리했다.

김 교수는 "성철 스님은 한암 스님이 주장한 '도의-보조 법통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임제-태고 법통설'을 정론이라 주장했다"면서 "한암과 성철의 법통설 대립은 '보조와 임제', '한국과 중국' 가운데 어디에 정통성을 두어야 하는가 하는 인식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라기 보단 인식의 문제로 접근했다"고 해석했다.

덧붙여 김 교수는 "'사교입선(捨敎入禪)'을 교에 의지하여 선이 존재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하며 "선은 교와 함께 있을 때만이 제대로 빛을 본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우리사회에 보편화되고, 불교의 다양한 교학이 첨예하게 발달할 때 간화선은 더 빛을 발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한국불교 한국선의 정체성을 위해 △교학과 수행을 아우르는 수행공동체 △과학, 선 · 교와 함께하는 병진 필요성 △현대인 위한 다양한 선풍 △위빠사나 및 티베트 불교의 수행 장점 포용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학술대회서는 중국불교에 대한 고찰도 이뤄졌다. '중국불교 대승화에 대한 이해의 한 측면'이란 주제로 발표한 석길암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는 "중국 불교는 인도불교와는 다른 새로운 붓다관을 출현 시켰고 그 결과 약사여래불 및 비로자나 부처님 등 한국 불교에 영향을 끼친 새로운 붓다를 형상화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석 교수는 "구마라집의 역경 및 불교사상 전파 활동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전법의 기준은 당시 서북인도에서 유행하고 있던 부파불교적 성향이 짙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특정 대승경전을 중심으로 전체 경전을 종합적으로 해석 전승해 현재 중국 불교의 양상을 대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술대회는 '붓다의 가르침: 초기 경전의 한계와 의의'(정준영 · 서울불교대학원), '부파불교 비불설 논쟁으로 본 불설의 의미'(황정일 · 동국대), '중국불교의 대승화 과정에 대한 이해의 한 측면'(석길암 · 동국대), '한국선의 정체성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김방룡 · 충남대) 순으로 진행됐다.

봉은사 대표기도 33관세음보살 천수다라니 입재

6월 7일부터 천수다라니108독송 기도정진


서울 봉은사서 열린 천수다라니108독송 기도정진 입재식에서 스님들이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리고 있다.

서울 강남 대표사찰 봉은사가 도심 속 수행사찰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6월 7일 가정의 행복과 중창불사 원만 성취 등을 발원하는 천수다라니 108독송 기도 정진에 입재했다.

이번 기도 정진은 33개월간 진행되며 주중 오후 1시부터 관세음보살 예경과 천수다라니 108독이 진행된다. 또 평일 기도 동참이 어려운 불자들을 위해 토요일 밤 오후 6시에도 야간기도가 진행된다.

주지 원명 스님은 33관세음보살 대정진기도에 들어가기에 앞서 "33관세음보살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과 마음속에 있는 고충을 살펴주시고 소원성취토록 하는 원력을 가지고 계시다"며 "모든 사부대중이 매월 한자리에 모여 한 마음 한 뜻으로 봉은사 중창불사 원만성취와 나와 내 가족의 행복과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정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33관세음보살 대원성취 천수다라니 정진기도는 상시접수로 가입비 10만원, 둘째 달부터 매월 3만원씩 동참금으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동참자에 한하여 기도책, 발원카드, 가족축원, 성지순례 등 6가지 혜택이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봉은사 홈페이지(www.bongeunsa.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2)3218-4801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 보물 지정됐다

문화재청, 4일 공고… "조선 후기 다포식 공포 전형"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의 극락보전〈사진〉이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강원도 속초 소재 신흥사 극락보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81호로 지정했다"고 6월 4일 밝혔다.

신흥사 극락보전은 〈설악산신흥사대법당중창기(1749)〉, 〈신흥사극락전중수기(1770)〉, 〈신흥사극락보전중수상량문(1821)〉 등의 자료를 통해 1749년(영조 25년)부터 1821년(순조 21년)까지 4차례 수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보수공사 기록 등 연혁을 확인할 수 있는 풍부한 문헌 기록을 갖고 있어 건물의 역사가 잘 남아 있는 편이다.

극락보전은 18세기 중엽에 중건한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多包)식 팔작지붕 건물로서, 18~19세기 영동지방의 중요한 왕실 원당사찰로서 세부의장과 공포형식이 우수하고 기단과 계단, 창호 등 높은 품격의 요소들도 잘 보존돼 있다. 특히, 기단의 모란, 사자 문양과 계단 난간 소맷돌의 삼태극, 귀면(鬼面), 용두 문양 조각들은 다른 사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귀한 사례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붕을 받치는 공포는 화려함과 품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조선 후기 다포식 공포의 전형"이라며 "신흥사 극락보전은 형태 · 구조 · 장식 측면에서 뛰어날 뿐만 아니라 보존상태 또한 양호해 보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어린이 · 청소년 지도자 연수 열린다

불교 각 단체 연수회 개최

불교계 어린이 청소년 단체들이 지도자 양성에 나섰다. 먼저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신공)은 6월 23~24일 보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제64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에서 동련은 어린이법회 지도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프로그램과 어린이 포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강의를 진행한다.

조계종 포교부장 가섭 스님의 '내 마음의 행복을 찾아' 주제 강의와 동련 이사장 신공 스님의 '이런 선정바라밀은 처음이지!' 강의, 장초희 심리상담사의 '우리가 만드는 선정바라밀' 강의 등이 이어진다. 24일에는 요가와 함께 만다라 체험, 숲길 명상 등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노휴)도 7월 7일 '붓다 핸썸(Hands UP)! 희망 붓다!'를 주제로 제61회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한다. 사찰 어린이법회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지도자 강습회는 찬불가 율동의 활용을 모색하는 강의가 이어진다. 펜아트 우드등 만들기 등 프로그램도 소개된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심산)는 6월 22~24일 서울 법련사에서 불교청소년지도자 기본과정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에서는 △불교청소년지도자가 갖춰야 할 청소년의 이해 △국가 청소년정책의 이해와 활용 △청소년 상담 △명상지도법 △문화재지킴이 지도법 △자원의 발굴과 활용 △파라미타의 이해 △우수지도 사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실습도 진행된다.

노덕현 · 하성미 기자

서울시민이 함께하는 茶축제

한국차인연합회(회장 박권흠)는 6월 16일 BBS불교방송과 함께 서울 수국사에서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차문화대축제 '유월의 향기로운 차 이야기'를 개최한다.

서울시가 후원하는 이번 차축제는 수국사 경내에서 다양한 차(茶)문화와 사찰음식 체험을 비롯해 어린이 다례, 가루차 행다례, 108인 헌다 시연 등이 진행된다. 또한 시민들에게 우리의 전통 차를 맛보게 하고, 다식 만들기, 향낭 주머니 만들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한국차인연합회는 1979년 설립된 대표 차인단체로 전국단위 차회를 육성하고 차생활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차축제가 열리는 서울 수국사(주지 호산)는 조선시대 왕실 사찰이자 서울 서북부 지역으로 대표하는 수행 포교 도량으로 법당 전체가 순금으로 돼있어 황금법당 사찰로도 잘 알려져 있다. 노덕현 기자

Cheontae Order of Korean Buddhism Art Award 2018

제 3 회

천태예술 공모대전

접 수 2018. 9. 5(수) ~ 6(목)
전 시 2018.10.17(수) ~ 23(화)

대한불교천태종은 다양한 예술분야의 저변 확대를 통한 문화융성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3회 천태예술공모 대전을 개최합니다. 전통불화, 현대불화, 조각, 공예, 서예·문인화, 민화, 사진 일곱 개 분야에서 참신한 예술가를 발굴합니다.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 재량 하에 출품 부문 부적합 판단 시 부문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된 출품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출품 서류(출품원서, 작품설명서) 작성 미비 시 심사에서 제외.
- 우편 접수의 경우 작품 훼손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 작품 접수 후 전시까지 보관 과정에서 작품 자체의 변형은 책임지지 않음.
- 기발표작, 표절작, 사찰 봉안 및 판매된 제품, 타인명의 출품 불가. 확인 시 추후 입상 무효화 및 상금 반환 조치.
- 기타 공모전의 운영은 운영위원회의 결정과 상규에 따름.
- 초대작가 제도는 운영하지 않는 관계로 작가 점수가 제공되지 않음.
- 인터넷으로 원서 등록한 경우, 원서 없이 접수번호만으로도 접수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금강신문 홈페이지 www.ggbn.co.kr 확인 바랍니다.

1 분야 및 분야별 공모 개요

분 야	규 격	출품료	출품제한	유의사항
전통불화	200호 미만	1점당 50,000원	1인 2점	표구된 완성작만 접수
현대불화				
조 각	높이 250cm 미만	1점당 50,000원	1인 2점	완성품으로 제출
공 예	가로 세로 50cm 이하	1점당 50,000원	1인 3점	완성품으로 제출
서 예 문인화	전지 이하 가로 70×세로 130cm	1점당 30,000원	1인 3점	배접하지 않고 접수
민 화	100호(150cm) 미만 전지 이하	1점당 30,000원	1인 3점	배접, 액자 제작 후 접수 (유리 금지)
사 진	디지털 JPEG파일 최소 3024×2016 픽셀, 최소 600만 화소 이상	1점당 30,000원	1인 3점	작품명·성명·주소·우편번호·전화번호 기록파일 첨부하여 메일로 접수.

2 출품자격 제한 없음

3 제출서류
- 출품원서(소정양식) 1부
- 작품설명서(소정양식) 1부
※ 작품 사진 미 부착, 작품 제목, 설명 및 규격 미기재, 주소 및 연락처 미기재 등 소정양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원서 제출자의 작품은 추후 심사에서 탈락되오니, 원서 및 작품설명서를 충실하게 기재해주세요.

4 원서 배부 및 작품 접수
-공모 요강 : 금강신문 홈페이지 www.ggbn.co.kr에서 5월부터 확인.
-원서 등록 : 금강신문 홈페이지 www.ggbn.co.kr에서 8월 1~31일 한 달간.
-접수 기간 : 9월 5일(수)~6일(목) (우편발송의 경우 6일 도착분까지)
-접수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접수 장소 : 관문사 2층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7길 111)
사진 부문은 ct-gongmo@daum.net으로 6일 오후 5시까지 메일 접수.

5 시상 내역

시 상	수상인원	시상내역	비고
대 상	1명	상금 2,000만원 상장 상패	종단 귀속
최우수상	2명	상금 각 500만원 상장 상패	
부문별우수상	7명(부문별 1명)	상금 각 100만원 상장 상패	
가작	7명(부문별 1명)	상금 각 50만원 상장	
장려상	14명(부문별 2명)	상금 각 30만원 상장	
특선	부문별 약간명	상장 및 상품	
입선	부문별 약간명	상장	

6 문의 천태종총무원 서울사무소 / 02-723-1559

7 심사 발표 금강신문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 통보

8 시상식 및 전시
시상식 일정 추후 공지
전시 - 10월 17~23일 서울 인사동 아라아트센터

주최 대한불교천태종 | 주관 제3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운영위원회 | 시행 대한불교천태종 천태문화사업단 | 후원 금강신문사, 천태불교중앙박물관